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K LIM PIANO RECITAL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앞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겨주세요.



악장 사이 방금듣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안자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을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단,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들의 혜택입니다.)



15만 공연 애호가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그

의

슈

베

르

트

CREEDIA

18 · 3 · 7

SEOUL ARTS CENTER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2018년 3월 7일 (수)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슈베르트 1797-1828

즉흥곡 Op.142 D.935

제 1번 f단조. 중간 빠르게	11'
제 2번 A플랫 장조. 약간 빠르게	8'
제 3번 B플랫 장조.안단테 테마와 변주곡	12' 30"
제 4번 f단조. 빠르고 경쾌하게	6' 30"

중간휴식

CREEDIA

슈베르트 1797-1828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장조 D.960

38'

- 1악장 보통 빠르게
- 2악장 음을 유지하면서 느리게
- 3악장 스케르초. 빠르고 생기있으면서 섬세하게
- 4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Pianist

Dong Hyeok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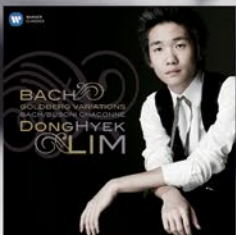
& His Discography



1집 <피아노 리사이틀>



2집 <쇼팽 리사이틀>



3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4집 <쇼팽 전주곡>



〈모차르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DONG HYEK LIM PIANO RECITAL

8PM Wednesday, March 7,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F. Schubert 1797-1828**Impromptus Op.142 D.935**

No.1 in f minor. Allegro moderato	11'
No.2 in A flat Major. Allegretto	8'
No.3 in B flat Major. Theme (Andante) with Variations	12' 30"
No.4 in f minor. Allegro scherzando	6' 30"

INTERMISSION

CREEDIA

F. Schubert 1797-1828**Piano Sonata No.21 B Flat Major D.960**

38'

- I. Molto moderato
- II. Andante sostenuto
- III. Scherzo. Allegro vivace con delicatezza
- IV. Allegro ma non tropp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5. 31. THU
SEOUL ARTS CENTER

정열과 우아함의 완벽한 조합! 조슈아 벨 & ASMF의 8년만의 귀환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Joshua Bell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BWV 1041 ·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6. 8. FRI
SEOUL ARTS CENTER

냉정의 바이올리니스트 몰로바와 첫 내한하는 스위스 대표 체임버, 제네바 카메라타
빅토리아 몰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아이브스 "대답없는 질문" · 거쉬윈/케렌 "포기와 베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Op. 64 · 베토벤 교향곡 No. 8, Op. 93



6. 16. SAT
LOTTE CONCERT HALL

첼로의 음유시인, 미샤 마이스키와 비엔나 체임버가 만드는 반짝이는 비엔나 사운드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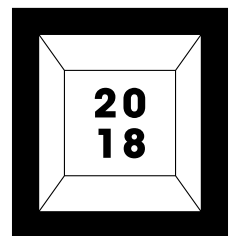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 33 · 모차르트 교향곡 No. 39, K. 543



2018 CREEDIA CHAMBER MUSIC SERIES

All About Chamber

지금 CIELOS Club 에 가입하시고 2018 체임버 뮤직 패키지 최상위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세요!
· 가입문의 1577-5266



CHAMBER MUSIC SERIES



슈베르트

즉흥곡 Op.142 D.935

두 세트, 여덟 곡으로 이루어진 즉흥곡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슈베르트의 음악세계로 인도한 작품이다. 권위 있는 슈베르트 학자인 브라이언 뉴볼드(Brian Newbould)가 썼듯이, 즉흥곡은 슈베르트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지키면서도 좀 더 대중적인 측면을 드러낸 탁월한 '대표(ambassador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슈베르트는 1827년 늦가을, 어둡고 향량한 <겨울나그네>와 밝고 느긋한 피아노 트리오 B플랫장조(D898)를 쓴 이후 12월에 두 번째 즉흥곡을 세트(네 곡)를 썼다. 악보에 5-8번이라고 기입한 것을 보면 아마 그 해 여름에 쓴 첫 번째 세트(D899)의 '2부'로 의도한 것 같은데, 결국 출판은 따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것에 비해 좀 더 외향적이고 친근하다는 느낌을 준다. '즉흥곡(Improptu)'이라는 제목은 슈베르트가 아니라 출판업자인 하즐링거(Tobias Haslinger)였는데, 사실 낭만주의 시대에 크게 유행하게 될 이런 피아노 소품에서 제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슈베르트 자신의 또 다른 작품인 '악흥의 순간(Moments Musicaux)', 혹은 훗날 멘델스존이 붙인 것처럼 '무언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슬리베체크(Josef Mysliveček)의 '디베르티멘토'나 토마세크(Václav Tomášek)의 '목가(Eclogues)'처럼 슈베르트에 앞서 짚고 자유로운 피아노 소품을 쓴 작곡가들이 있었고 또 즉흥곡이라는 제목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소품 형식을 최상의 예술작품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슈베르트였다. 슈베르트는 단순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 피아노에 어울리는 텍스처, 아름다운 선율에 어느 소나타 못지 않은 대담한 구상과 강한 집중력을 하나로 엮어냈는데, 때로는 첫 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나타 형식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곡에서마저 슈베르트는 장조와 단조, 정박과 엃박을 오가는 방랑자의 길을 걸으며, 음악적인 '주장'보다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작품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명랑한 3부 형식 안에서 마치 숨어있는 선율을 암시하듯 담담하게 펼쳐지는 두 번째 곡, 주제와 다섯 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서정적인 세 번째 곡(네 곡 중 가장 유명하다)에 이어 마지막 네 번째 곡에서는 슈베르트만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헝가리 풍(all'ungherese) 스케르찬도가 펼쳐진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장조 D.960

슈베르트에게 1828년은 폭발적인 창작열과 조금씩 찾아오는 달콤한 성공,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건강,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8월까지의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 친구들과의 교제와 사교 생활도 적극적인 편이었으며 자기 작품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월에는 마인츠의 쇼트(Schott)와 라이프치히의 프로스트(Probst) 출판사에서 접근하고 자신의 작품으로만 꾸민 연주회도 개최하는 등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828년 가을, 사후 <백조의 노래>로 출판된 가곡들을 마무리할 무렵부터 슈베르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슈베르트는 9월에 최후의 피아노 소나타 세 곡과 현악 5중주를 완성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9월 27일에 있었던 음악 모임에서 작곡가가 직접 세 곡의 소나타를 모두 연주했다고 한다.

세 곡의 소나타는 작곡가가 해당 장르에서 만든 최후의 3부작이라는 점에서 종종 모차르트의 마지막 3대 교향곡과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알프레드 브렌델이 말했듯이 모차르트가 생애 만년에 일종의 후기 스타일에 도달한 반면 슈베르트는 반대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는 중간에 세상을 떠났으며, B플랫장조 소나타야말로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c단조(D958)와 A장조(D959) 소나타가 - 물론 지극히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긴 하지만 - 구조적인 부분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참조한 반면, B플랫장조 소나타에서는 더 이상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베토벤답지 않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베토벤이 가장 격렬한 부분에서도 늘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다면, 슈베르트는 가장 엄격한 부분에서도 늘 몽상적이다. 베토벤은 언제나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는 간결한 사람이라면, 슈베르트는 언제나 느리다. 슈만은 이를 가리켜 '천상적인 길이라는 유명한 표현을 썼다.

c단조 소나타가 역동적이고 A장조 소나타가 서정적이라면, B플랫장조 소나타는 숭고하고 담담하면서도 이 세상을 초월한, 혹은 일체의 감정이 사라진 적막한 분위기가 있으며 악장 사이의 대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특히 첫 두 악장의 명상적인 분위기는 슈베르트가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추구했던 세계의 가장 드높은 경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아노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는 첫 악장에서 오른손이 연주하는 첫 선율은 끊임없이 왼손이 연주하는 음울하고 어두운 트릴과 만난다. 이 위협적인 트릴은 결코 음악 구조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질적 존재로서 '외부'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음악적 대조는 은밀하지만 강렬하며, 제시부가 반복될 때 갑자기 트릴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포르티시모)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이 반복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주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첫 악장 중간, 발전부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선율은 가곡 '방랑자(Der Wanderer)'를 연상케 하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절망은 절정에 도달한다. 반면 모든 상념을 버린 듯 무색무취의 투명한 세계가 펼쳐지는 안단테 악장은 (자매, 혹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악 5중주의 아다지오 악장과 더불어) 마치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사람의 독백, 혹은 애가(lamen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느린 음악은 슈베르트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최후로 부른 녹턴, 혹은 뱃노래(barcarolle)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은 슬며시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며 마무리되지만, 이것은 행복한 결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어지는 스케르초 3악장은 변화무쌍하다. 여기서 작곡가의 상념은 현실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몽환적이고 섬세하며, 마지막 소나타-론도 악장에 도달해서야 드디어 현실로 돌아와 정열적인 질주를 시작한다. 여기서 영원한 방랑자인 슈베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청중에게(혹은 세상에) 작별을 고한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임동혁

© SANWOOD AGENCY

CREATIA

DONG HYEK LIM
PIANIST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그곳의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였다.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가브리엘로프, 부닌 등을 길러낸 명교수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황금 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임동혁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몰고 왔지만, 2005년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하며 그의 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또한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으며, EMI 클래식스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EMI 클래식스는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며 EMI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4명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 11월에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샬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 홀 등 전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르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몽펠리에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등지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다.

한편, 샤를 뒤투아가 지휘 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 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리 벨로홀라베크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킬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도 협연해오고 있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cclaimed by audiences, critics and fellow musicians, Dong Hyek Lim is regarded as one of the finest pianists of his generation. He was born in 1984 in Seoul, South Korea and moved to Russia at age ten to become a pupil at the Moscow Central Music School. He graduated in 1998 and continued studies at the Moscow State Tchaikovsky Conservatory with Professor Lev Naumov. Lim also studied in Germany with Arie Vardi at the Hochschule fur Musik in Hannover and in the States with Emanuel Ax at the Juilliard School.

Lim's performances at the Small and Great Halls of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Salle Pleyel and Salle Cortot in Paris, the Lazienski Palace in Warsaw, the Konzerthaus in Berlin and with Martha Argerich at the Philharmonic Hall in Beppu, Japan, have won great acclaim. Also, Lim has appeared in many renowned festivals, including Verbier in Switzerland, Klavier-Festival Ruhr in Germany, International Chopin Festival in Poland, La Roque d'Antheron, Montpellier Radio France and Piano aux Jacobins Festivals in France. He has performed with world's major orchestra such as NHK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St. Petersburg Philharmonic Orchestra, New Japan Philharmonic under conductors Charles Dutoit, Myung-Whun Chung, Yuri Temirkanov.

In May 2001, Lim became the youngest pianist ever to sign a recording contract with EMI Classics and received the Diapason d'or award in France for his debut album of Chopin, Schubert, and Ravel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 series, released in June 2002. His second recording with EMI, featuring Chopin's B minor Sonata and other minor works was awarded the Choc Prize by Le Monde de la Musique. In 2008, Lim released his third album, playing Goldberg Variations by J.S Bach, and his most recent recording of Chopin the complete prelude on Warner has been met with critical acclaim such as Gramophone and BBC Magazine.

Lim has won top prizes at various competitions. In September 1996, he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by winning the second prize at the Chopin Competition for Young Pianists in Moscow as the youngest participant of that year. He went on to win the second prize at the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Japan in 2000. In December 2001, not only did he become the youngest winner of the Premier Grand Prix in the history of the Marguerite Long-Jacques Thibaud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but also he won five other special awards. In October 2005, Lim took the third prize in the 15th International Frederic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Warsaw and won the fourth prize in the 13th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2007.

피아니스트 임동혁 나의 영혼 나의 노래, 슈베르트



임동혁은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호리호리한 몸에 연약하고 앓던 얼굴, 빠듯한 공연 일정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이번 인터뷰 때는 그동안의 그와는 매치가 잘 되지 않는(?) 편안하고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요즘 그는 한동안 머물렀던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독일에서의 삶은 조금 더 내추럴하고 규칙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살도 많이 오르고 마음도 안정돼 보였다.

“결혼을 해서 그런지 많이 편안해 졌어요(웃음). 최근에 독일로 이사했지만, 여기저기서 살아보니 사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같아요. 예전에 좋아하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체력이 안 따라 줘서 못하고 있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살이 좀 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인대요. 이제 운동만 하면 훨씬 몸이 건강해 지지 않을까 싶어요.”

2015년 쇼팽 워너 클래식스 레이블을 통해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을 발매하며 30대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던 그가 3월, 자신이 사랑하는 슈베르트 작품을 가지고 우리 곁을 찾아온다. 그는 2015년 인터뷰 때에도 언젠가 슈베르트의 마지막

유작 소나타 D960을 연주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쇼팽 음반을 냈을 당시엔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반대로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때예요(웃음). 지난 3년 동안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묻자 그는 곰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음악’이라고 말한다.

“음악이 결국 제 인생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음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쳐도 견뎌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버티는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겐 그 버티는 힘이 음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주하는 슈베르트가 제겐 너무나 의미가 큰 작곡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쇼팽을 연주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제 마음 속엔 늘 슈베르트가 있었거든요. 자신도 있었고 솔직히 약간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웃음). ‘임동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슈베르트처럼 진지한 음악이 어울릴까’ 의문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슈베르트 음악과 잘 어울린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매뉴얼 액스 선생님도 제 슈베르트 연주를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유분방하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예요. 은근히 통제되는 걸 좋아하고 균형과 절제가 중요한 고전 음악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있어요. 슈베르트 음악은 그렇게 고전적이면서도 노래가 중요한 작품들이 많아 지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잘 맞죠. 그런데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비극적이잖아요. 그런 점에 왠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물론 슈베르트 음악만 비극적인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곡들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베토벤의 음악도 연주하다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아픔을 예견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명곡이라고 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어느 한 곡도 마냥 행복한 곡은 없지 않나 싶어요.”

임동혁만의 감성, 그리고 가능성

세상에는 천재들에 대한 전설이 많다. 음악가로는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쇼팽이 그렇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우리에게 천재의 얼굴로 기억된다. 7세 때 피아노를 시작해 10세 때 러시아로 건너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청소년 쇼팽 콩쿠르 1위에 입상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연주를 듣고 라 로크 당테롱 페르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에 초청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EMI 클래식스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임동혁을 추천해 발매한 EMI 클래식 데뷔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에서 수상하는 쇼크상을 받은 2집에 이어 2008년 출시된 3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까지 임동혁은 섬세하고

화려한 낭만음악의 매력과 단아하고 깊이 있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들려주며 인기를 모았다.

국제 콩쿠르에서의 수상 역시 독보적이었다. 그는 롱 티보, 하마마츠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수상 거부), 쇼팽 콩쿠르 2위 없는 공동 3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4위에 입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15회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형제의 공동 3위 수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천재 소년의 얼굴로 기억되던 그도 어느덧 서른 중반을 넘어섰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시간이라는 선물이 더해져 새로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날이 변화해 왔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는 재능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당연히 재능만 가지고는 예술을 할 수 없겠죠. 만약 흰 눈을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표현하라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경우 아무리 아름다운 눈을 만져도 그냥 소금처럼 서걱서걱거린다고 밖에는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재능이 출중한 사람은 눈을 만져보지 않고도 어떤 느낌인지 묘사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재능이 있다면 연주를 할 때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감성을 아직 어린 나이여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해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경험하는 건 상상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되면 음악을 표현하는 폭이 넓어지고 음악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살면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가슴이 뚫린 것 같은 아픔, 공허함 이런 감정을 누가 또 겪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느 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앞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이 무척 두렵기도 해요. 아무리 그 경험을 음악 속에 녹여낸다 해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결국 사람마다의 경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잘 타고 때로는 부서질 듯 연약해 보이는 그이지만 임동혁의 음악은 쇼팽의 ‘화려한 변주곡’에서조차 화려함보다는 음표들이 빚어내는 작은 프레이즈들의 변화와 드라마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춘 연주라고 평해진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담백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나 절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연주자인지 말해준다.

“음악은 테크닉만으로, 풍부한 감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감성만으로 좋은 음악을 한다면 집시들이 클래식음악을 제일 잘 하겠죠. 클래식 음악은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배경이 있어야 하고 수학, 과학, 심리학, 인문학을 공부하듯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어요. 음악은 질서 정연한 세계 속에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클래식 음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선보이는 슈베르트 작품 역시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최고봉이라 꼽히는 곡들이다. 서정미와 청초함이 돋보이는 즉흥곡과 심오한 슈베르트 만년의 심정이 드러난 마지막 소나타는 모든 음의 소중함을 드러내야 하는 각별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래 D959, D960을 같이 연주하고 싶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연주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연주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거든요. 슈베르트의 소품이 갖는 완성도는 아주 높고 아름다워요. 이 곡들은 출판사에 보내진 뒤 10년 후에 출판업자인 디아벨리가 리스트에게 바치는 헌정본의 형식으로 Op.142의 작품번호를 달고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죠. D960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에 작곡했다는 점에서 세상과의 작별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아름답고, 가슴을 파고들 때는 아주 깊이 파고들고, 그러면서도 대범한 곡이에요. 이 곡을 연주하다 보면 슈베르트가 이 정도로 용감했나? 테크닉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서 피아노로 연주하기엔 참 힘들게 작곡을 한 듯 싶어요.”

그의 말처럼 이번 독주회는 슈베르트의 따뜻하고 솔직한 인간미 속에 흐르는 음악적 아름다움을 무대에 선보이는 자리여서 테크닉과 지적인 통찰력, 직관력, 그리고 음색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등 다방면의 음악성이 필요한 무대다.

“슈베르트를 연주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지만 라두 루푸를 좋아하고 예전에 들던 것보다 알프레드 브렌델 연주를 지금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주가 아니었는데 요즘 다시 들어보니 이전과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테크닉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전 그런 부분들이 안들리고 예전엔 빈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 틈을 어떤 아우라와 기운으로 가득 메우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이전 완벽한 연주보다는 무엇인가를 초월한 연주가 좋아요. 연주 하나 하나 마다 초초하게 준비하고 무대에 서는 제 스타일 때문인지 그런 연주들이 부럽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와 닿네요.”

‘인생’을 담은 슈베르트의 음악

겉으로 보기에는 시크해 보이는 그이지만 임동혁을 잘 아는 사람은 그가 속정이 깊고 마음 여린 연주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에 서기 전 많이 긴장하고 스스로 속을 태운다.

“가끔 내가 무대를 여유있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때가 올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위에서 내가 어떤 연주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위로(?)해 주지만 사실 두려운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무대조차 많이 떨려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무대에서 즐기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힘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서 그런 초조한 마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유명 연주자들의 경우도 그렇게 못한 연주가 아닌데 1부 때 조금 실수한 걸 스스로 자책하느라 공연 전체를 망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모든 연주자에게 무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면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하죠. 이것 역시 견디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주자에게 성공은 무엇일까? 예술은 자기 탐구를 거쳐 삶의 근원적인 힘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힘은 비로소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많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해요. 우선 맨탈이 강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음악 앞에 성실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 행운은 건디는 사람에게 오더라고요.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죠.”

임동혁의 음악도 이제는 봄을 지나 어느덧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의 강으로 흐르고 있다. 그 역시 오랜 기다림을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번 슈베르트 독주회를 마치면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와 라흐마니노프 음반작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어린 시절의 테크닉을 유지하면서 깊은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연주를 계속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는 게 느껴져요. 몸을 써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테크닉은 부족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하고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예요. 스포츠맨 나이로는 거의 환갑에 가까운데 그가 쌓아온 기록은 이미 신기록을 다 넘었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선수고요. 저 역시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 피아니스트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술은 평생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기교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서른이 넘어가면 손가락이 이미 달라지죠. 물론 자신이 얼마나 관리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아직까지 저는 무대에서 지금까지처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음악적으로 분명 나아진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역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음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집중된다고 한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빠지게 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행복, 나의 불행에 너무 연연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나를 둘러싼 진짜 세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의 진짜 모습에 대해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죠. 그런 면에서 슈베르트를 연주할 때 그냥 음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좋아요. 슈베르트 음악에는 세상만사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삶 그 자체죠.”

슈베르트가 노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밝고 환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의 음악 속에 담긴 인생의 모든 노래는 사실 우리 모두의 노래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슈베르트 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조 바꿈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전 마디까지 장조였다가 그 다음 마디에서는 단조로 바뀌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작곡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 음악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로 드러내 놓고 감정이 바뀌니까 연주자로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단조에서 장조로 넘어갈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몇 마디 안에서도 장단이 계속 바뀌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의 모습이 물과 기름처럼 다르지 않은 한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슬픔과 기쁨이 경계선에 있으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단조에서 장조로

넘어갈 때가 원래 더 부자연스러운 법인데 그의 작품엔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하게 한 프레이징 안에서 변하면서도 잘 어울려요. 마치 계절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 세상처럼요.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이 좋아요. 진짜 인생 같아서요.”

한없이 슬프지만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바라보게 하는 음악. 슈베르트 음악에는 격조있는 슬픔이 깃들어 있다.

“슈베르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줍고 외롭지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연주를 하다보면 박력있고 활달한 낭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비극적이예요. 그러면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죠. 그게 뭘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음... ‘사랑’ 같아요.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 역시 사랑이고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껴주는 사랑. 사실 요즘 저희 집 강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웃음). 주인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다려주고 반가워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에겐 미래의 자식이 그런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제 음악도 좀처럼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인생을 뒤덮는 슬픔과 상실 속에서도 사랑은 예술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늘 꿈을 꾸죠. 내가 연주하는 음악 속에 품격있는 아픔이 깃들기를, 위로가 담기기를, 사랑이 남기기를요. 이번 슈베르트 독주회가 그런 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슈베르트를 좋아하는 건 아마도 그와 닮은, 닮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겠죠. 그걸 음악으로 들려드릴게요.”

서른 다섯, 인생의 푸르른 여름을 맞은 그가 그려낸 슈베르트 음악은 어떤 것일까? 그동안 임동혁의 음악은 언제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 속에 빛나는 천재성이 있었고 부서질 듯한 상실의 외로움이 있었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 있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이 첫 구절은 마치 임동혁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성찰은 인생을 닮은 슈베르트 연주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우리는 모두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말이다. 그의 연주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건 강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임동혁만의 힘이다.

글 | 국지연 진행 | 정원
객석 3월호 인터뷰 발췌

당신을 기다리며

리처드 용재 오닐

BENJAMIN - BEETHOVEN - MOZART - J. S. BACH - SCHUBERT

© SAUDA

신지아 — 문태국 — 이수민
디트체임버오케스트라

2018.3.31^{SAT} 8pm 롯데콘서트홀

TICKET R 100,000 / S 80,000 / A 50,000 / B 30,000 클럽발코니 1577-5266 인터파크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후원 **KOREAN AIR**

UNIVERSAL
MUSIC GROUP
INTERNATIONAL



© SANWOOD LEE

피아니스트 임동혁
“슈베르트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 일체감 느껴”



일주일 전, 피아니스트 임동혁(34)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다. 피아노 음악계의 '대모'와도 같은 존재인 마르타 아르헤리치(77)의 집은 브뤼셀 중심가의 고풍스러운 3층짜리 건물이었다. 그곳에 머문 사흘에 대해 임동혁은 "일방적인 레슨이 아니라 정답게 대화를 주고받은 느낌"이라고 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아르헤리치는 임동혁이 EMI에서 데뷔 앨범(2002)을 내뿜을 때부터 변함없는 후원자다. 이번에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의 핵심은 "슈베르트였다"고 했다. "마르타 선생님 앞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피아노로 슈베르트를 연주했죠. 아주 편안하게 연주했어요."

임동혁이 슈베르트의 음악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오는 3월2일 강동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인천 남동소래아트홀(3일), 서울 예술의전당(7일), 천안예술의전당(9일), 대구콘서트하우스(10일), 부산문화회관(13일), 울산중구문화의전당(15일)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13일 서울 정동에서 만난 그는 "슈베르트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지만 슈베르트에게 가장 강한 일체감을 느껴요. 슈베르트를 연주할 때 저는 굳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16년 전 데뷔 앨범에서부터 슈베르트의 음악을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의 저명한 음반사인 '황금디아파종상'을 수상하면서 '17세 양팡 테리블'의 등장을 알렸던 이 앨범에는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4 Impromptus, D.899)'이 담겼다. 물론 이후에도 임동혁은 슈베르트의 음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오로지 슈베르트만 집중해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투어에서 그는 '즉흥곡 D.935'와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인 D.960을 연주한다.

'방랑' 혹은 '이방의 삶'이라는 측면도 임동혁이 슈베르트에게서 느끼는 일체감 가운데 하나다. 그는 10세 때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해 10년간 머물렀고 이후에 독일 하노버에서 3

년, 미국 뉴욕에서 7년, 그리고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서 2년째 살고 있다. 20여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오히려 이방의 삶이 자연스럽다고 할 만하다. "모스크바에서야 부모님 밑에서 편히 살았죠. 하노버에서는 좀 힘들고 외로웠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 사는 베를린은 참 좋아요. '샤를로텐부르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사는 조용한 동네죠. 베를린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신만의 멋을 부리면서 살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도 마음의 여유를 찾았죠."

물론 '마음의 여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임동혁은 베를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얼마 후 결혼했다. 그리고 그 무렵 베를린을 방문한 아르헤리치에게 뜻밖의 '결혼선물'도 약속받았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결혼선물 하나 주실래요?'라고 먼저 말을 꺼냈죠. 두말없이 오케이하셨어요."

아르헤리치가 약속한 선물은 레코딩이다. 임동혁은 오는 7월에 영국의 BBC심포니와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을 녹음할 예정이다. 이 음반에는 아르헤리치와 함께 연주하는 곡도 수록될 예정이다. 곡목은 아직 미정이다. 일주일 전 아르헤리치의 집에서 무슨 곡을 연주할지를 상의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아르헤리치와 임동혁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내년 초에 음반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동혁은 "마르타 선생님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분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분이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이런 농담도 덧붙였다. "얼마 전에 담배를 끊으셨더라고요. 제가 권련형 전자담배를 슬쩍 권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웃음)"

작곡가 슈베르트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슈베르트(1797.1.31~1828.11.19)는 무려 600곡이 넘는 수많은 예술가곡을 작곡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곡의 왕"으로 불리지만, 그를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이 다재 다능한 작곡가를 단순한 별명 하나로만 부르기에겐 뭔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베르트는 평생에 걸쳐 무려 1,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비록 절반 이상이 길이가 짧은 '가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다른 장르에서도 수많은 명곡들을 무수히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는 생전에 열 편이 넘는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고, 아홉 개의 교향곡과, 미사곡 그리고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트리오 같은 실내악곡과,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등을 작곡했고, 스무 곡이 넘는 소나타와 듀엣, 즉흥곡, 변주곡 등 많은 수의 피아노 작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슈베르트가 남긴 작품의 수는 57년을 살다간 베토벤의 그것보다 훨씬 많고, 모차르트가 35년 동안 작곡한 곡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겨우 그가 31년 동안 만들어 낸 것임을 생각한다면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그가 첫 작품을 작곡한 것이 열세 살 무렵이라 하니, 정확히 말하자면 31년 동안이 아니라 18년 동안인 셈이죠.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작곡한 곡이 천여 곡에 이른다면, 이걸 밀린 숙제를 하듯 책상 앞에 앉아 골머리를 싸가며 만들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숫자일 듯합니다. 그야말로 선율이 저절로 솟아 나와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의 숫자가 아니었을까요? 과연 슈베르트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음악이 담겨있었던 걸까요?

그는 고뇌하며 작곡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늘 끊이지 않고 악상이 샘솟듯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독히 가난했던 슈베르트는 음악을 기록할 오선지조차 살 여력이 없어 그것조차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직업을 구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스승이기도 했던 '살리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궁정 부악장' 자리가 공석으로 나왔지만, 그 자리는 첼리스트 출신인 '요제프 바이글'에게 넘어갔으며, 그 다음으로 기회가 왔던 '황실 가극장의 지휘자' 자리도 슈베르트가 음악적 고집을 꺾지 않는 바람에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의 불운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거의 유일한 여인이었던 '테레제 그로브'와는 별이가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헤어졌으며, 영악한 출판업자 '디아벨리'는 순진한 슈베르트의 저작권을 입도선매로 모조리 계약해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곡이 출판돼도 슈베르트는 돈을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슈베르트는 평생 시인 '괴테'를 흠모하고 존경해서 그의 시에다 곡을 붙여 자필 악보를 선사했지만, 괴테는 그 악보를 굳이 다시 슈베르트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 했죠. 거의 평생 한 번뿐이었던 그의 유일한 독주회는 하필이면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파가니니'의 연주회와 겹치는 바람에 전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150센티가 겨우 넘는 작은 키에, 불룩하게 나온 배, 곱슬머리에 근시 안경까지... 몇 안 되는 그의 초상화 중에는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화가 친구들의 우정 어린 배려 때문이었

다는군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걸린 몸쓸 병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와 가뜩이나 내성적이던 슈베르트를 끝없는 절망의 나라로 내 몰았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자주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일기 속에는 그의 슬픔과 절망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제발 다시 눈이 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까지 했었을까요? 평생을 따라다닌 궁상맞은 가난과, (소수의 친구들을 빼고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병까지, 어쩌면 그는 그가 남긴 아름다운 음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음악가 중 한 명이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한없이 지속되는 불운 속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은 태어납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음악은 그의 불행한 삶을 양분 삼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만들어냈죠. 말했듯이 슈베르트는 가곡 외의 다른 장르에서도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지만, 그의 모든 작품은 그 어떤 작품이건 간에 모두 '노래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가곡의 왕"이라는 그의 별명은 이제는 매우 적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피아노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베토벤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피아노 소나타 작곡가 중의 한 명으로, 18세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모두 21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합니다. 하지만 그가 작곡한 소나타들은 베토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엄격하고 치밀하며 완벽한 형식미를 자랑하는 베토벤의 소나타와는 달리 그의 소나타는 끊임없이 멜로디가 반복되며 특정한 형식 없이 마치 아주 긴 노래처럼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슈베르트를 "낭만주의 시대의 첫 작곡가"로 애정 어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글렌 굴드' 같은 피아니스트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를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장문의 에세이 같은 작품"으로 폄하하고 녹음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나타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알프레드 브렌델', '폴 바두라 스코다', '미초코 우치다'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슈베르트 피아노곡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내면서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브렌델'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2악장은 세상의 모든 '애가(哀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까지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슈베르트의 작품들은 "베토벤의 여성적 분신"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생전에 베토벤을 겨우 두세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베토벤을 흠모했습니다. 괴테와는 달리 베토벤은 슈베르트를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그를 도와줄 여력은 없던 때였죠. 하지만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의 장지에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결국 베토벤이 떠난 후, 1년 만에 그를 따라간 슈베르트는 묘지도 베토벤 옆에 마련해 영원히 그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세상을 떠나기 약 2달 전쯤 피아노 소나타 세 곡을 연달아 작곡했는데, 이 마지막 세 곡은 그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리며 사랑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마지막 소나타인 21번 D.960은 슈베르트가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로 불리는데, 그의 스타일을 완성한 피아노 소나타로 그의 작품 중 백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그 동안 늘 슈베르트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으로 소개하며 작곡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작곡가"라는 말로 슈베르트와의 일체감을 피력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또 다른 작곡가인 쇼팽과 함께, 그의 데뷔 앨범에 슈베르트의 <즉흥곡 D.899>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쇼팽과 슈베르트 모두 서정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모두 노래하는 게 중요한 곡들이예요. 제 목표는 언제나 무대에서 노래하듯 연주하는 것이예요."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슈베르트의 곡에서 '노래'를 찾아내 피아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우리 시대의 젊은 비르투오조입니다. 그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준비한, 슈베르트로만 꾸며지는 이번 순회공연 무대에서는 그동안 그가 자주 들려주지 못했던 슈베르트의 또 다른 <즉흥곡 D.935>와 함께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21번 D.960>을 처음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10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여 '클래식 아이돌'로 불렸었지만 임동혁은 어느덧 슈베르트가 지상에 머물던 시간보다 더 긴 삶을 살아가며, 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아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을 뽑아냈듯 피아니스트 임동혁도 이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양분 삼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작품 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숨겨놓은 작곡가와, 피아노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런 행복한 무대를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찬란한 봄이 시작되는 화려한 3월에,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슈베르트의 멜로디로 전국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소외감, 상실감, 고뇌, 고독, 허무, 회한 같은 삶의 다양한 감정들을 모든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켰던 슈베르트! 그의 아름다워서 슬프고, 슬퍼서 아름다운 음악을, 생명의 싹이 움트는 봄의 문턱에서 임동혁의 연주로 만나보세요. 모든 슬픔과 아픔은 그의 피아노를 통해 정화된 기쁨으로 피어올라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깊이 저장될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란 없다. 오직 슬픔으로 만들어진 노래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2018 CREDIA SEASON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2018
STARSHIP
©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1577-5266

credia.co.kr ·  ·  · 

PIANO RECITAL SERIES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1.10(WED)-1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Dong Hyeok Lim Piano Recital
3.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Eugeny Kissin Piano Recital
10.28(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HAMBER ORCHESTRA SERIES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Joshua Bell &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5.31(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빅토리아 뮐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Viktoria Mullova & Geneva Camerata
6.8(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Mis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6.16(SAT) 롯데콘서트홀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Yo-Yo Ma & Silkroad Ensemble
10.17(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TARDUST SERIES

지용 리사이틀 - I AM NOT THE SAME

Ji Recital

2.24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 DUO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3.31 (SAT) 롯데콘서트홀

신지아 리사이틀 - 反轉 반전

Zia Hyunsu Shin Recital

4.28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츠 퀸텟 with 임동혁

Veits Quintet with Dong Hyeok Lim

8.14 (TUE) 롯데콘서트홀

스테판 잭키브, 콘라드 타오 & 제이 캠벨 - 보헤미안

Stefan Jackiw, Conrad Tao & Jay Campbell - Bohemian

12.20 (WED) 롯데콘서트홀



INTERNATIONAL ORCHESTRA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Santa Cecilia Orchestra & Antonio Pappano

11.15 (THU) - 16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다닐 트리포노프(15일), 조성진(16일)



열정의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130년 전통의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역사적 첫 내한!



PARK CONCERT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8 (SAT)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조수미 콘서트 - One Night in Paris

Sumi Jo Concert - One Night in Paris

9.9 (SUN)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FAMILY & ATTRACTIONS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1.27 (SAT) - 28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 - Romance in Heartstrings

Yuhki Kuramoto Concert

5.23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 FROZEN

Disney in Concert - FROZEN

5.19 (SAT) - 20 (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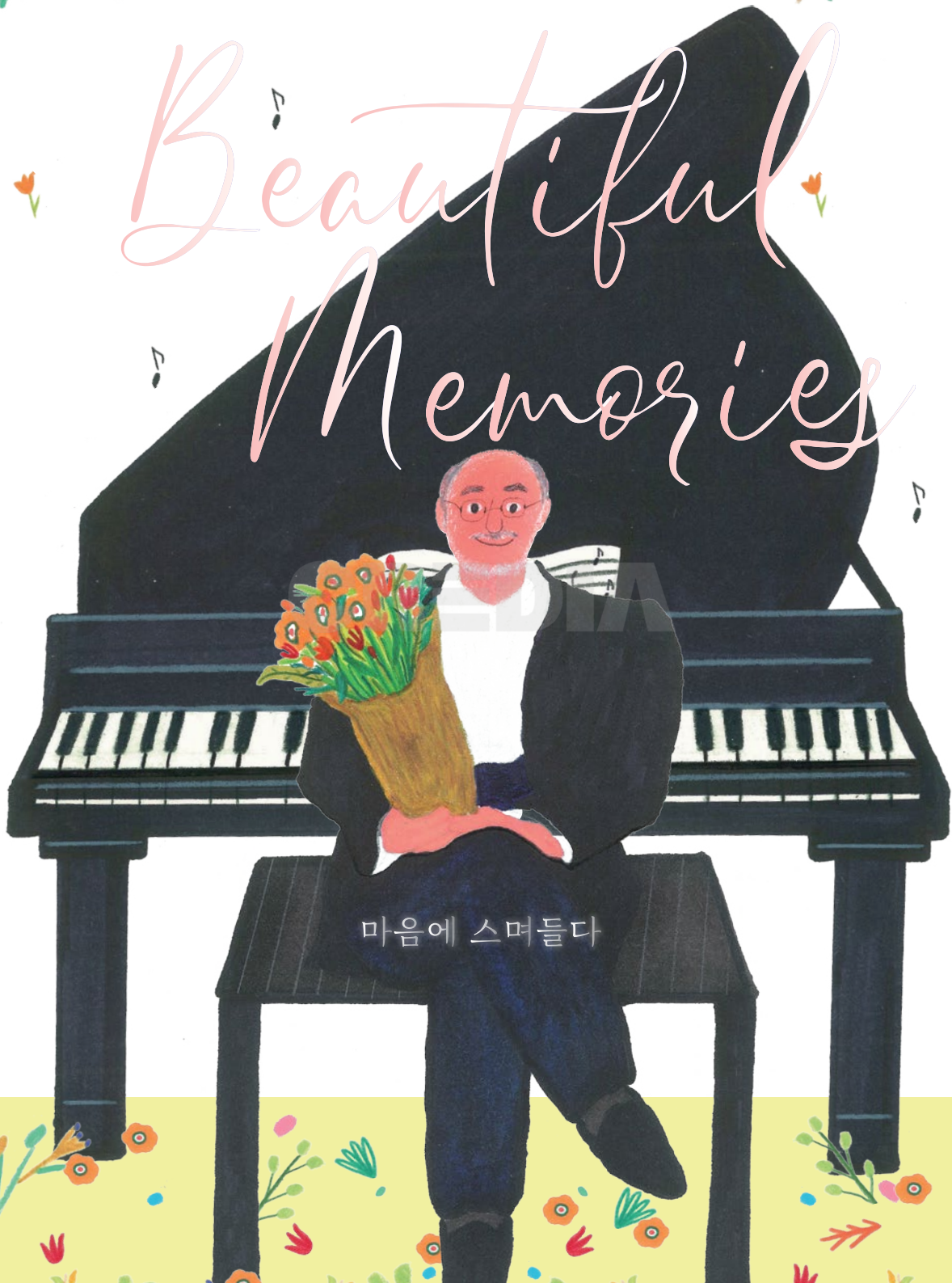
Christmas Concert - Yuhki Kuramoto with Friends

12.26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Beautiful
Memories



마음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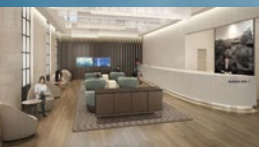
2018.5.23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DIA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항공사

그
의
슈
베
르
트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